www.ii.re.kr

ISSN 3022-8522(Online)

최근 인천경제

2026년 10월



Ⅰ 지역경제

1. 기업경기
2. 투자
3. 수출입
4. 기업금융
5. 고용

Ⅱ 시민경제

1. 소비
2. 물가
3. 가계금융
4. 소상공인
5. 부동산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최근 인천경제 요약

Ⅰ. 지역경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심리도 반등했으나, 제조업 생산·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 건설수주 및 자영업 위축으로 지역경기 회복은 고르지 못한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줄고 재고는 늘었으며, 기업심리 반등에도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투　　자) 전국 설비투자는 기계류 중심으로 늘었으나, 인천 건설수주는 공공 발주 급감으로 감소 전환

(수 출 입)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의약품·자동차는 부진,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축소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이 5개월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지며,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

(고　　용) 상용·일용직 증가로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임시직은 소폭 감소했고, 자영업자 감소 폭은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물가 오름세도 둔화했으나, 소비 증가 폭이 줄고 가계대출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남아 생활경제의 개선은 제한적

(소　　비) 소비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둔화했고, 소비심리 반등에도 업종별 소비 회복 흐름은 엇갈림

(물　　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폭이 줄며 전체 물가 오름세는 둔화, 석유류·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은 지속

(가계금융)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잔액이 다시 늘고,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상승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나란히 개선됐으나, 10월 전망은 전월 조사보다 후퇴

(부 동 산) 매매가격은 전년 수준을 소폭 웃돌았으나 전월보다 하락, 전세는 가격·수급 모두 상승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차부관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I-1 경 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줄고 재고는 늘었으며, 기업심리 반등에도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 `26.8월 인천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6%, 전월대비 9.0% 감소하여 142.5를 기록

- 인천 광공업 생산지수에서 전년동월대비 늘어난 업종은 기계·장비수리(120.2%), 의료정밀광학(42.4%), 화학제품(15.1%) 등이며, 기계장비(△28.5%), 의약품(△6.9%), 자동차(△13.9%) 등 업종에서는 감소
- 인천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계절조정)는 110.5로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 10.1% 감소했고, 생산자제품 재고지수(계절조정)는 130.1로 전년동월대비 12.7%, 전월대비 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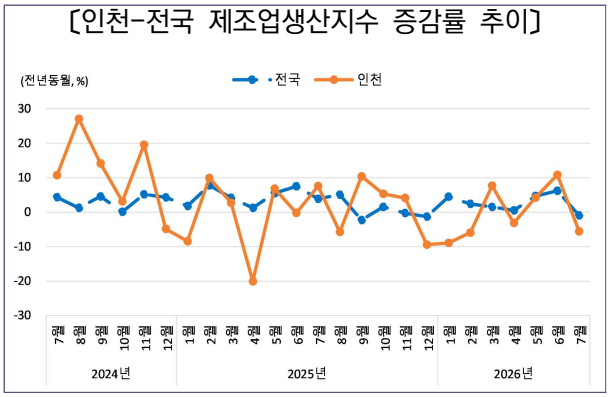
○ (전국) `26.8월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커졌으나 광공업이 감소로 돌아서며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1.9%로 낮아졌고,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매판매도 감소세 지속

-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계장비(13.5%) 등이 늘었으나 자동차(△29.4%), 고무·플라스틱(△11.8%) 등이 줄어 2.2% 감소로 전환했으며, 전월대비로도 4.8% 감소
- 전국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9.6%), 전문·과학·기술(13.4%) 등을 중심으로 4.6% 늘어 증가 폭이 전월보다 1.2%p 커졌으나, 소매판매는 내구재(△5.6%)·준내구재(△1.3%) 부진으로 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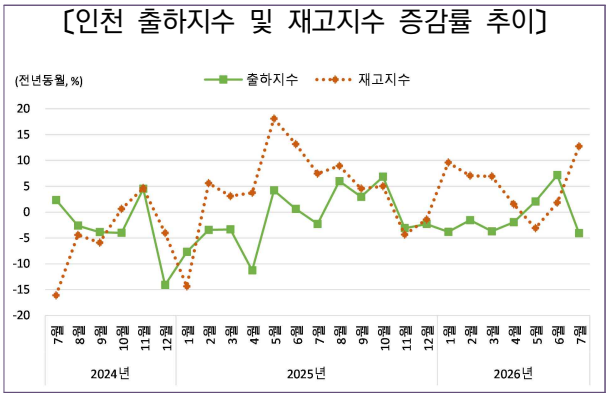
(p:잠정치, 소매판매액지수(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는 불변지수 기준)

전월비,% / 전년동월비,%	전 국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26.7월p → 8월p	△0.1 → △1.3	0.5 → △4.8	△1.4→ 0.5	△2.6 → △1.8	△8.6 → △4.5	△1.7 → 0.4	△0.1 → △1.6
	3.1 → 1.9	4.0 → △2.2	3.4 → 4.6	△1.0 → △0.3	△4.9 → △5.6	△0.4 → △1.3	0.8 → 2.4

〔인천-전국 제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인천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인천광역시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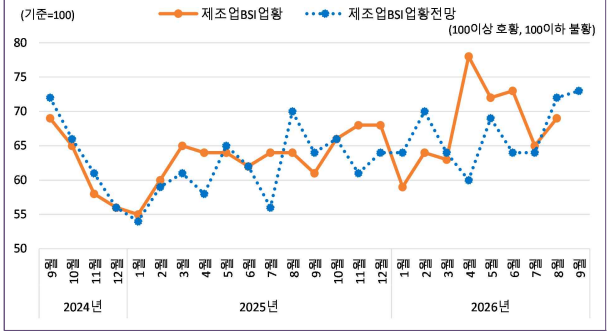
2020=100 (전년동기, %)	`24년	`25년	2026년					전월대비
	연간	연간	4월	5월	6월	7월p	8월p	
생산지수	146.1 (22.7)	145.9 (△0.1)	161.4 (7.7)	135.9 (△3.1)	159.1 (4.3)	156.6 (10.8)	142.5 (△5.6)	△9.0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119.2 (3.2)	116.3 (△2.4)	114.3 (△3.7)	110.4 (△2.0)	124.1 (2.1)	122.9 (7.1)	110.5 (△4.1)	△10.1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108.8 (4.5)	104.5 (△4.0)	120.7 (6.9)	118.3 (1.5)	124.6 (△3.1)	127.1 (1.8)	130.1 (12.7)	2.4

주 1) () 연간자료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자료의 경우 계절조정값을 활용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p는 잠정치
2) 전월대비는 최근 제조업생산지수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3) 자료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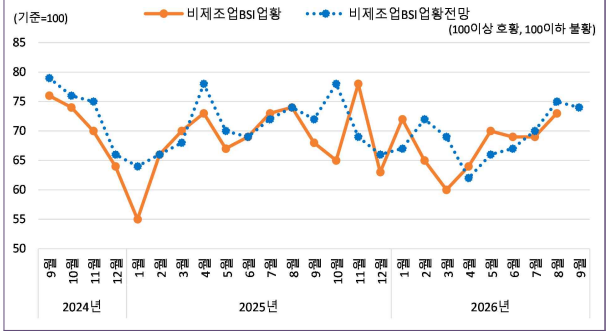
○ '26.9월 인천 제조업 BSI 실적은 69로 전월대비 4p·전년동월대비 5p 증가, 비제조업은 73으로 전월대비 4p 증가·전년동월대비 1p 감소, 10월 BSI 전망은 전월 전망 대비 제조업 1p 증가, 비제조업 1p 감소

- 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7월) 64 → (8월) 64 → (9월) 72 → (10월) 73
- 비제조업 업황BSI 전망(S.A.): ('26년 7월) 67 → (8월) 70 → (9월) 75 → (10월) 74

[인천 제조업BSI업황 추이]



[인천 비제조업BSI업황 추이]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부문별 기업경기실사지수]

	2026년					2026년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제조업 매출	90	91	83	76	제조업 내수판매	87	89	82	80
제조업 생산	91	93	92	78	제조업 수출	96	94	95	95
제조업 신규수주	81	81	81	70	제조업 원자재구입가격	151	144	141	138
제조업 채산성	62	67	64	64	제조업 자금사정	72	73	65	70
제조업 판매가격	102	96	100	93	비제조업 매출	78	73	88	76
제조업 제품재고	99	104	107	98	비제조업 채산성	77	78	86	77
제조업 설비투자	91	96	92	92	비제조업 인력사정	79	83	83	80
제조업 인력사정	91	97	97	101	비제조업 자금사정	81	79	81	79
제조업 가동률	96	94	88	78					

주 1) 본 BSI는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고, 100보다 작을 때는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많음을 의미
2)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인천광역시 제조업/비제조업 업황BSI]

기준=100 (전년동월, %)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제조업 업황	66 (1.5)	68 (17.2)	68 (21.4)	59 (7.3)	64 (6.7)	63 (△3.1)	78 (21.9)	72 (12.5)	73 (17.7)	65 (1.6)	69 (7.8)
비제조업 업황	65 (△12.2)	78 (11.4)	63 (△1.6)	72 (30.9)	65 (△1.5)	60 (△14.3)	64 (△12.3)	70 (4.5)	69 (0.0)	69 (△5.5)	73 (△1.4)

자료: 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 `26.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고 전년동월보다 2.6p 낮은 수준이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하여 전년동월보다 3.6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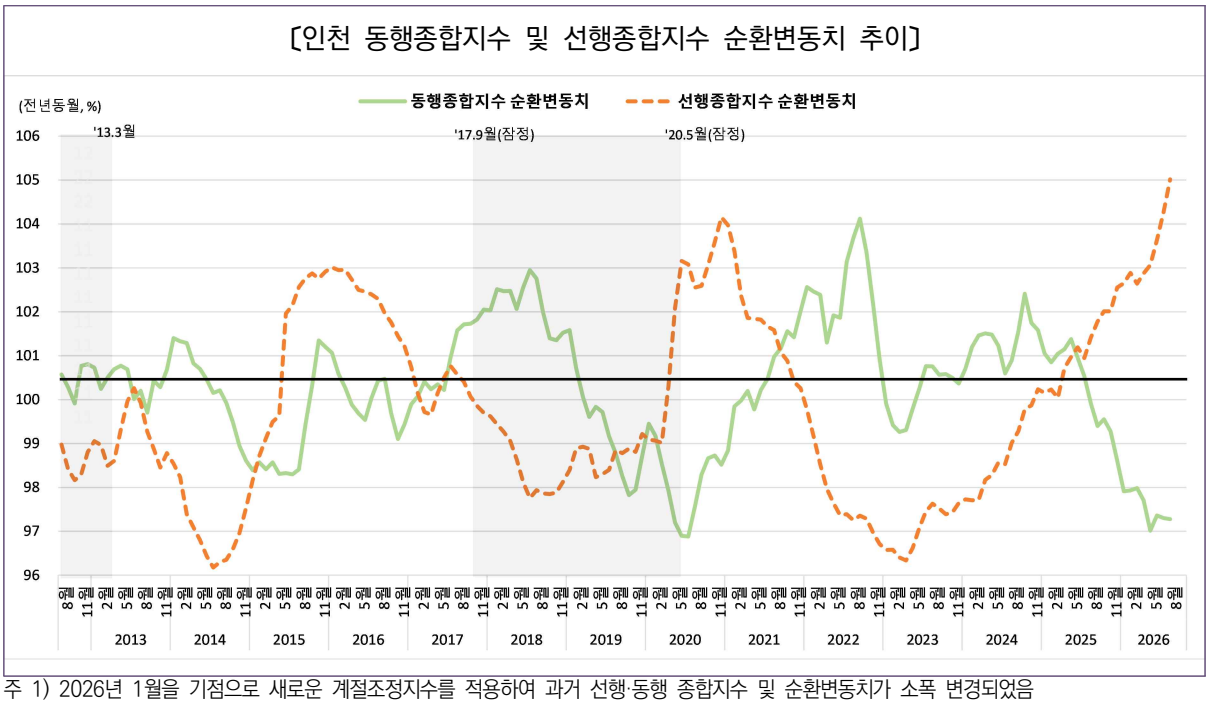
- 동행·선행 순환변동치는 97.3·105.0, 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0.7% 증가한 114.0·104.6 기록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증가, 산업생산지수, 컨테이너처리량,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실질 수출액·수입액은 감소
-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는 전월대비 자동차등록대수비율, 건축허가면적, 수출입물가비율, 금융기관유동성이 증가하였고,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장단기금리차는 감소

○ 인천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5월 이후 97대에 머물며 현재 경기의 개선이 더딘 반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상승하여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 신호 간 차이 확대

- 두 순환변동치의 격차는 7.7p로 5개월 연속 벌어졌으며, 선행이 기준선(100)을 웃도는 가운데 동행은 밑도는 상태(`26.4월 5.2p → 5월 6.1p → 6월 6.2p → 7월 7.0p → 8월 7.7p)

* 2분기 이상 순환변동치가 증가하면 경기 확장기, 감소하면 경기 수축기로 판단(통계청 경기종합지수 해설 참고)

[인천 동행종합지수 및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여 과거 선행·동행 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가 소폭 변경되었음
2) 자료 : 인천경기종합지수 재구성, 인천연구원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반영으로 일부 시계열 변경)

[인천광역시 경기종합지수]

2020=100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99.6 (0.2)	99.3 (△0.3)	98.6 (△0.7)	97.9 (△0.7)	97.9 (0.0)	98 (0.1)	97.7 (△0.3)	97 (△0.7)	97.4 (0.4)	97.3 (△0.1)	97.3 (0.0)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02 (0.2)	102 (0.0)	102.6 (0.6)	102.6 (0.0)	102.9 (0.3)	102.6 (△0.3)	102.9 (0.3)	103.1 (0.2)	103.6 (0.5)	104.3 (0.7)	105 (0.7)

자료:『인천경제동향』, 인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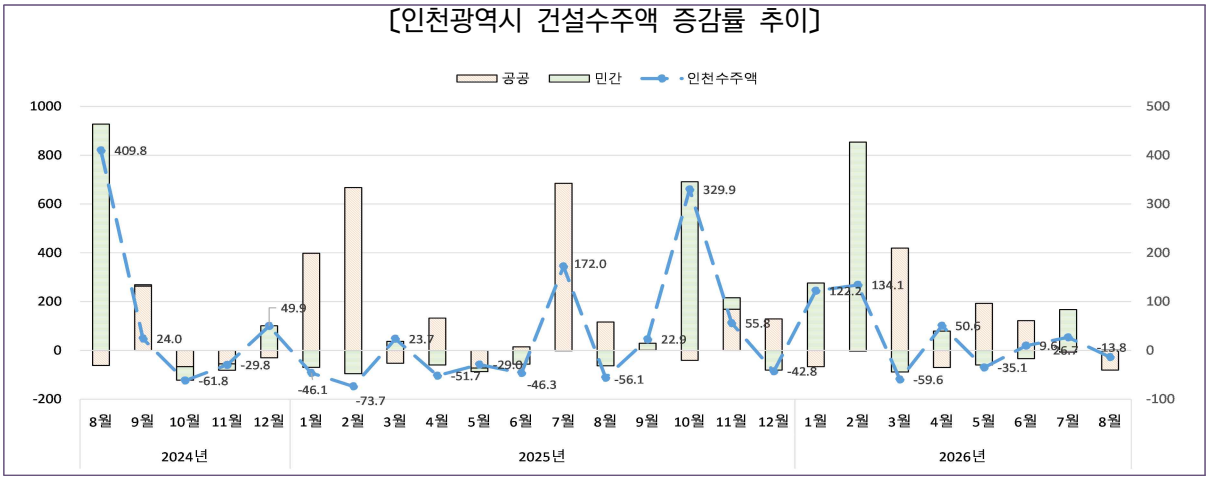
I-2 투 자

전국 설비투자는 기계류 중심으로 늘었으나, 인천 건설수주는 공공 발주 급감으로 감소 전환

○ `26.8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발주자별 건설수주액은 공공 80.4% 감소, 민간 1.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8% 감소, 전월대비 공공은 96.1%, 민간은 49.8% 줄어 전체적으로 66.6% 감소

- 전년동월 기준 공공 부문은 신규주택, 조경공사 등 수주가 줄었고, 민간 부문은 신규주택, 사무실 등 수주가 늘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17.2% 감소, 토목 부문 27.8% 증가

[인천광역시 건설수주액 증감률 추이]



자료 : 건축허가및통계, 국토교통부

○ (전국) 기계류 호조에도 운송장비 부진으로 설비투자 증가 폭이 줄고,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 전년동월 기준 기계류(25.4%) 투자가 늘었으나 운송장비(△4.3%)가 줄며 설비투자 증가율은 16.1%로 낮아졌고, 전월대비로는 운송장비(△32.8%)를 중심으로 9.5% 감소하였으며,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 1.3% 늘었으나 건설수주는 10.3% 감소

(p:잠정치)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 국					
	설비투자	기계류	운송장비	기계수주	건설기성	건설수주
`26.7월p → 8월p	8.0 → △9.5	3.7 → 1.6	18.2 → △32.8	△19.5 → 33.8	△1.0 → 1.9	20.1 → 19.1
	24.6 → 16.1	21.0 → 25.4	32.2 → △4.3	31.6 → 42.2	△3.4 → 1.3	△26.3 → △10.3

[인천지역 건설동향]

(단위 : 천㎡, 억원, %, p는 잠정치)

		2024년 연간	2025년 연간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p	2026년 8월p	전월대비
건축허가면적		7,342 (△25.0)	7,955 (8.3)	756 (△52.7)	431 (7.2)	590 (107.7)	376 (△19.6)	477 (△43.2)	26.9
건축착공면적		7,628 (44.5)	5,228 (△31.5)	1,006 (28.6)	537 (△2.8)	586 (224.6)	67 (△79.8)	789 (246.8)	1073.9
건설수주액		126,207 (47.6)	104,705 (△17.0)	10,269 (50.6)	4,271 (△35.1)	10,540 (9.6)	17,945 (26.7)	5,996 (△13.8)	△66.6
발주	공공	15,103 (△11.9)	28,942 (91.6)	392 (△70.0)	1,852 (193.0)	5,995 (121.8)	6,511 (△6.9)	253 (△80.4)	△96.1
	민간	111,104 (84.4)	72,818 (△34.5)	9,876 (79.2)	2,418 (△59.4)	4,544 (△33.9)	11,434 (167.8)	5,742 (1.4)	△49.8
공종	건축	93,292 (43.5)	83,760 (△10.2)	9,602 (51.0)	3,945 (△37.8)	5,441 (△34.0)	17,645 (66.4)	5,323 (△17.2)	△69.8
	토목	32,914 (60.5)	20,945 (△36.4)	667 (44.1)	325 (34.3)	5,098 (273.5)	301 (△91.6)	673 (27.8)	123.6

주 1)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의 () 연간 자료는 전년누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건설수주액의 () 연간 자료는 전년대비 증감률, 월간 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 자료: (1) 건설경기동향조사, 통계청 (2)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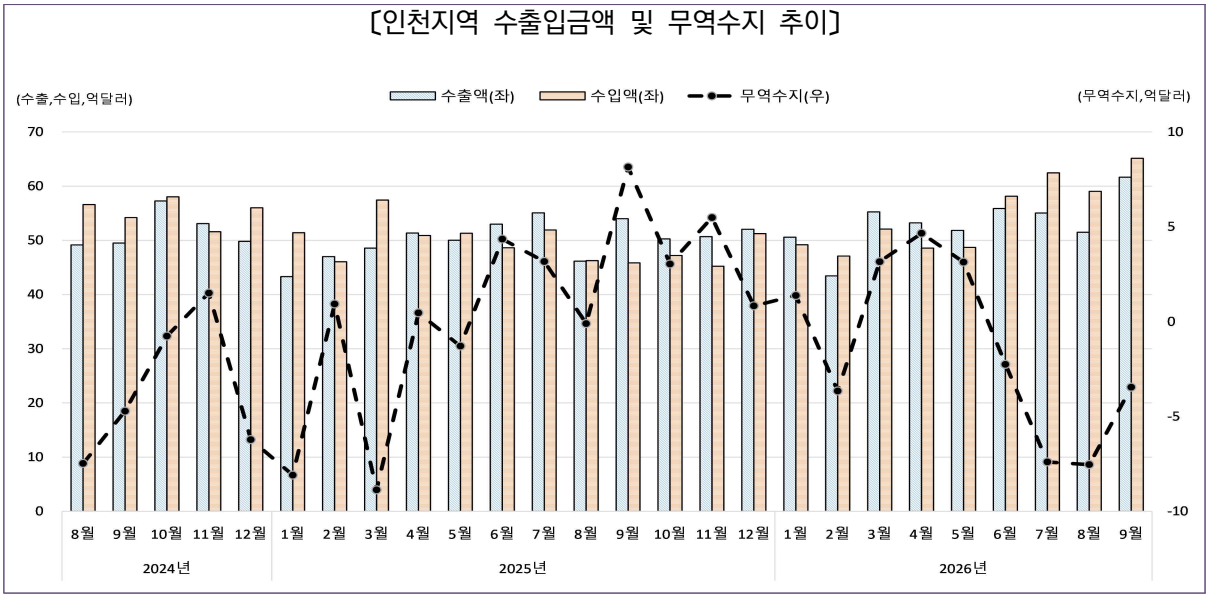
I-3 수출입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의약품·자동차는 부진,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축소

○ `26.9월 전년동월 기준 인천 수출액은 14.2%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42.0% 늘어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인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73.1%)를 비롯해 비누치약및화장품(20.3%), 반도체제조용장비(66.0%) 등이 늘며 의약품(△16.1%), 자동차(△9.3%), 철강판(△22.1%) 등의 감소에도 전체 수출 증가
- 석탄(△5.0%) 수입은 줄었으나, 최대 수입 품목인 반도체(117.0%)와 천연가스(86.5%), 원유(11.0%) 등이 늘며 인천 전체 수입액은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
- 수출액은 61.67억 달러, 수입액은 6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적자 폭이 약 4.1억 달러 축소

〔인천지역 수출입금액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전국) 반도체·컴퓨터 수출 호조로 9월 수출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흑자도 역대 최대 기록

- 전년동월대비 전국 수출액은 83.5% 증가한 1,209.4억 달러, 수입액은 26.0% 증가한 710.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498.5억 달러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403.7억 달러 확대
-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반도체 262.8%, 컴퓨터 435.3% 등)와 9대 시장 중 6개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반도체 수출이 603.0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9월 누적 무역수지는 2,525억 달러 흑자

〔인천지역 수출입현황〕

억달러 (전년동월%)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전월대비(%) 전월차 (무역수지)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액	595.24 (10.6)	601.52 (1.1)	51.84 (3.6)	55.89 (5.5)	55.04 (0.0)	51.50 (11.6)	61.67 (14.2)	19.7
수입액	637.68 (5.6)	593.46 (△6.9)	48.70 (△5.1)	58.14 (19.5)	62.44 (20.3)	59.04 (27.6)	65.13 (42.0)	10.3
무역수지	△42.44	8.06	3.1	△2.3	△7.4	△7.5	△3.5	4.1

주 1) ( ) 는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월간자료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자료: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9월 주요 수출품 중 의약품(△16.1%), 자동차(△9.3%)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이 14.2% 늘었으며, `26년 1~9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

-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73.1%), 의약품(△16.1%), 자동차(△9.3%), 비누치약및화장품(20.3%), 철강판(△22.1%) 순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수출품목별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5.9월		2026.9월		2026년 누계(1월~9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401	9.1	6,167	14.2	47,845	6.7
1	반도체	1,491	1.7	2,580	73.1	15,060	12.0
2	의약품	704	46.1	590	△16.1	5,861	18.7
3	자동차	634	5.0	576	△9.3	5,606	1.4
4	비누치약및화장품	214	19.1	258	20.3	1,853	30.7
5	철강판	239	△4.2	186	△22.1	1,820	△10.5
6	반도체제조용장비	73	1.5	121	66.0	807	△2.9
7	무선통신기기	160	△38.7	116	△27.6	1,266	△11.3
8	자동차부품	102	13.2	102	0.4	796	△3.7
9	형강	63	94.7	91	44.8	471	14.5
10	석유화학중간원료	78	△1.7	87	11.0	823	31.4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 `26.9월 인천지역 수출액 기준 상위 5개국은 중국, 베트남, 미국, 대만, 싱가포르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6.1%, 60.9%, 68.1%, 61.1%, 42.4% 증가

〔인천지역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25.9월		2026.9월		2026년 누계(1월~9월)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전년동월비	금액	증감률
	총계	5,401	9.1	6,167	14.2	47,845	6.7
1	중국	1,159	△14.9	1,462	26.1	9,696	4.2
2	베트남	636	56.4	1,023	60.9	7,003	24.2
3	미국	607	△27.4	1,020	68.1	7,749	12.1
4	대만	330	66.2	532	61.1	2,680	△17.7
5	싱가포르	184	△21.6	262	42.4	1,916	18.5
6	홍콩	111	△18.0	180	62.7	2,299	93.4
7	인도(인디아)	129	△16.9	178	38.4	1,304	3.1
8	헝가리	82	△39.9	133	61.2	967	29.0
9	일본	148	10.6	110	△25.7	1,097	2.4
10	캐나다	70	16.4	106	50.6	733	7.3

자료 : 무역통계(K-stat),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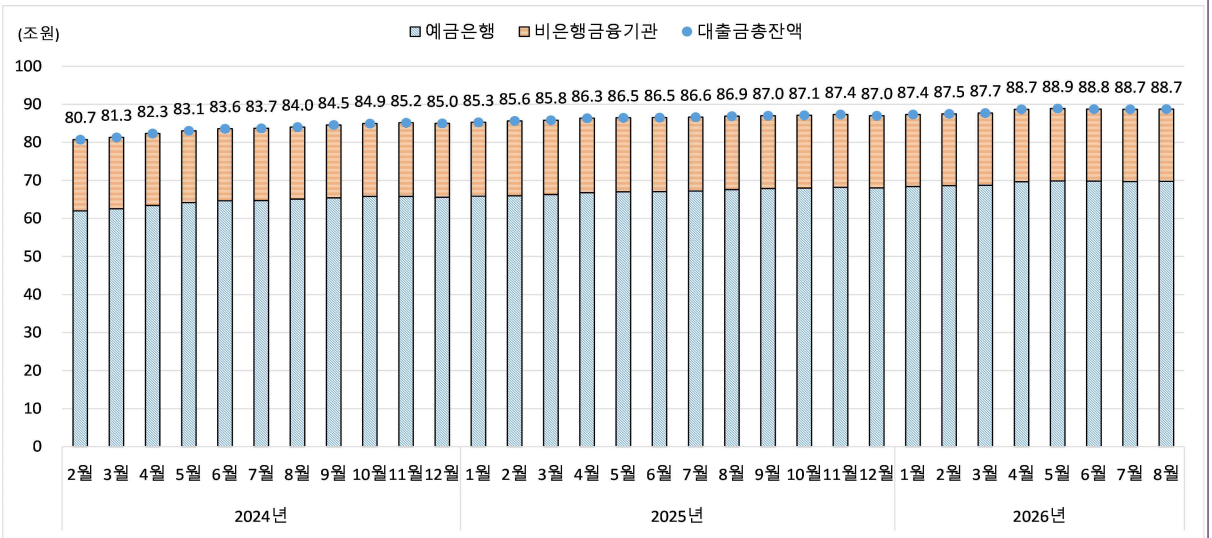
I-4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이 5개월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지며,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증가

○ `26.8월 인천시 기업 대출잔액은 88조 7,248억 원, 전년동월대비 2.07%, 전월대비 0.03% 증가

- 전월 기준 기업 대출잔액은 예금은행(0.1%)은 늘고 비은행(△0.2%)은 줄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39억 원 감소했으나 대기업이 344억 원 증가하여 전체 잔액은 305억 원 순증
-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6.66%, 전월대비 0.43% 증가하여 8조 28억 원을 기록
-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80조 7,22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 전월대비 39억 원 감소

〔인천지역 기업대출잔액(예금은행과 비은행취급기관 포함)〕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 `26.8월 인천시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1%p,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0.10%p 상승

- 기업대출 연체율은 3월 0.29%에서 4월 0.30%, 5월 0.32%, 6월 0.34%, 7월 0.40%, 8월 0.50%로 5개월 연속 높아졌으며, 전월대비 상승 폭도 7월 0.06%p에서 8월 0.10%p로 확대

〔인천지역 기업대출잔액 지표〕

십억원 (전년동월,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2026년 8월	전월대비(%) 전월차(%p)
예금은행	전체	65,595 (6.6)	68,014 (3.7)	69,634 (4.3)	69,875 (4.3)	69,801 (4.1)	69,682 (3.7)	69,758 (3.2)	0.1
	중소기업	59,536 (5.8)	61,394 (3.1)	62,166 (2.9)	62,468 (3.3)	62,620 (3.5)	62,697 (3.5)	62,734 (2.9)	0.1
비은행 취급기관	전체	19,391 (4.9)	18,986 (△2.1)	19,057 (△2.6)	19,012 (△2.5)	18,956 (△2.6)	19,012 (△2.2)	18,967 (△1.8)	△0.2
	중소기업	18,659 (5.6)	18,110 (△2.9)	18,110 (△3.1)	18,082 (△3.0)	18,008 (△3.4)	18,029 (△2.8)	17,988 (△2.4)	△0.2
어음 부도율	인천	0.25	0.19	7.82	0.26	0.2	0	0.01	0.01
기업대출 연체율	인천	0.27	0.29	0.3	0.32	0.34	0.4	0.5	0.1

주 1)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3) 자료: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I-5 고 용

상용·일용직 증가로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임시직은 소폭 감소했고, 자영업자 감소 폭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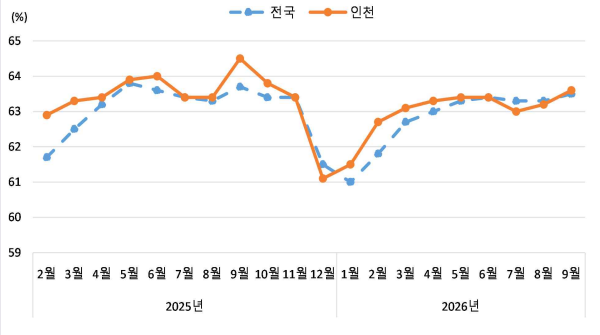
○ `26.9월 인천시 고용률은 63.6%(전국 63.5%)로 전년동월대비 0.9%p 감소, 전월대비 0.4%p 증가, 실업률은 2.4%(전국 2.0%)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전월대비 보합

- 남성 고용률은 전월대비 0.5%p 증가한 72.4%를 기록, 여성 고용률은 55.1%로 전월대비 0.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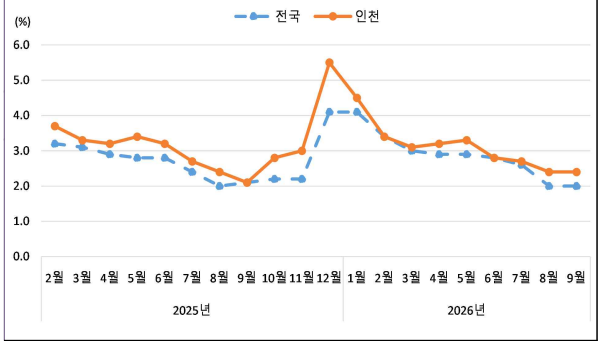
○ 인천시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6% 감소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 기준 상용직(3.1%)·일용직(7.2%)이 늘고 임시직(△0.3%)은 줄었으며, 자영업자는 282.3천 명으로 전월대비 2.9% 감소하여 3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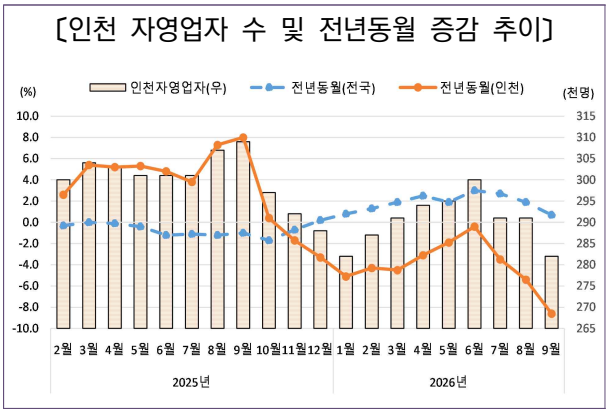
〔인천-전국 고용률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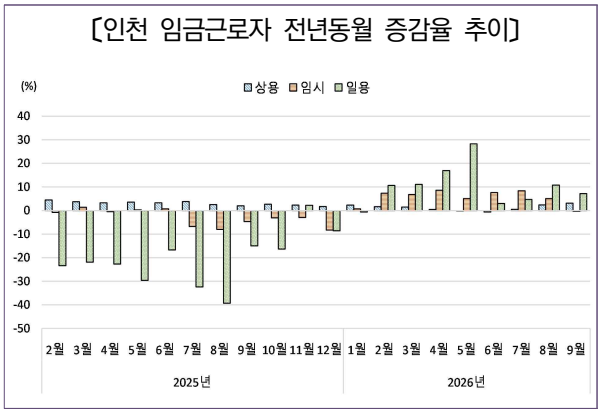
〔인천-전국 실업률 추이 비교〕



〔인천 자영업자 수 및 전년동월 증감 추이〕



〔인천 임금근로자 전년동월 증감율 추이〕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인천지역 고용 지표〕

% (전년동월차,%p)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2026년 8월	2026년 9월	전월차 (%p)
고용률	63.5 (0.4)	63.3 (△0.2)	63.3 (△0.1)	63.4 (△0.5)	63.4 (△0.6)	63 (△0.4)	63.2 (△0.2)	63.6 (△0.9)	0.4
남자	72 (△0.3)	72.3 (0.3)	72.2 (0.1)	71.9 (△1.1)	72.5 (△0.4)	71.2 (△1.2)	71.9 (△1.1)	72.4 (△1.0)	0.5
여자	55.2 (1.1)	54.4 (△0.8)	54.6 (△0.2)	55.1 (0.2)	54.5 (△0.9)	55 (0.5)	54.7 (0.7)	55.1 (△0.7)	0.4
실업률	3.3 (0.1)	3.2 (△0.1)	3.2 (0.0)	3.3 (△0.1)	2.8 (△0.4)	2.7 (0.0)	2.4 (0.0)	2.4 (0.3)	0.0

주 1) 증감은 소수점 한자리 수에서 반올림,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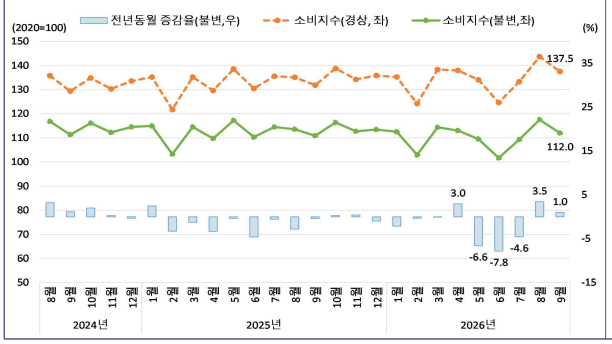
Ⅱ-1 소 비

소비지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둔화했고, 소비심리 반등에도 업종별 소비 회복 흐름은 엇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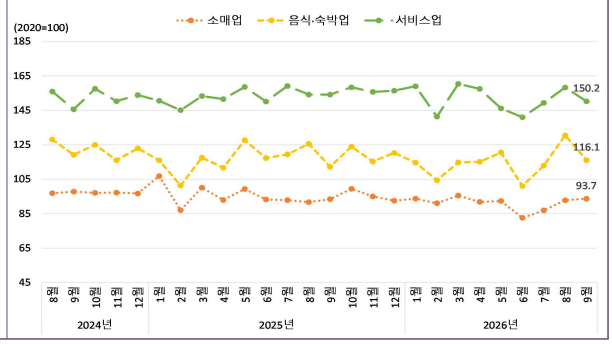
○ `26.9월 인천소비지수(불변)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 4.7% 감소하여 112.0을 기록

- 품목별 지수는 전년동월 기준 음식·숙박업(3.4%), 소매업(0.3%)은 늘고 서비스업(△2.5%)은 줄었으며, 전월대비로는 소매업(1.0%)만 증가하고 음식·숙박업(△11.0%), 서비스업(△5.1%)은 감소

〔인천소비지수 및 증감률 추이〕



〔인천소비지수(불변) 품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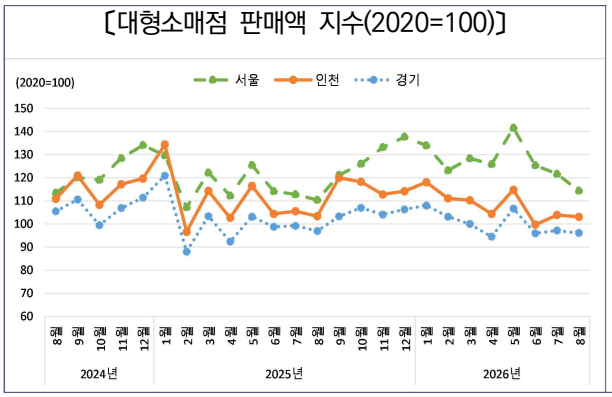


주) 2026.7.1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거 전 기간을 새 행정구역 기준으로 재집계 자료 : 신용/체크카드 결제 정보, 신한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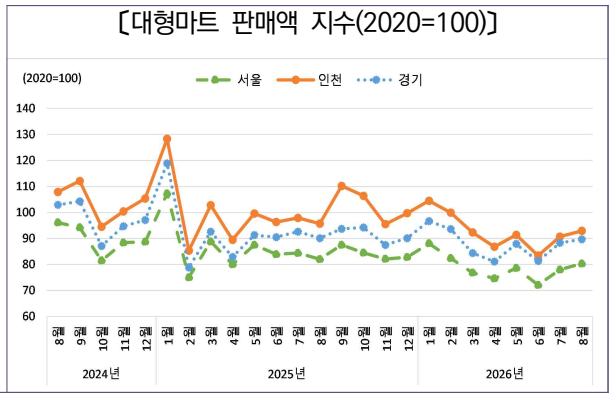
○ `26.8월 인천 대형소매점·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 폭은 전월보다 축소

- `26.8월 인천 대형소매점은 전년동월대비 0.3%, 전월대비 0.8%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2.9% 감소·전월대비 2.4% 증가하여 대형 유통 채널의 전년동월대비 부진은 지속
- 전년동월 기준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서울(3.6%)만 늘고 인천(△0.3%)·경기(△0.9%)는 줄었으며,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서울(△2.1%), 인천(△2.9%), 경기(△0.4%) 세 시도 모두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2020=100)〕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2020=100)〕



자료 : 서비스업동향조사, 통계청 (*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p)로 2개월 후에 확정)

○ `26.9월 인천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1.1p 상승하여 107.1을 기록

-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구성지수 기여도는 가계수입전망(1.1p)·현재경기판단(0.4p)·향후경기전망(0.2p)이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생활형편전망(△0.4p)·현재생활형편(△0.2p)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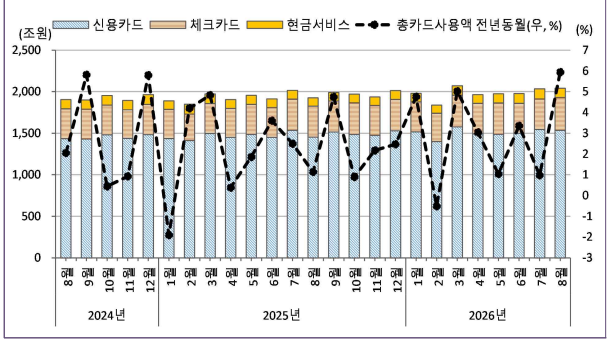
(전년동월, p)	2026년									전월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	109 (22.3)	111.5 (21.3)	107.9 (18.7)	97.6 (9.2)	105 (7.5)	108 (5.0)	106 (△0.4)	106 (△4.5)	107.1 (△0.1)	1.1

주 1)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표준화구간(2003~2021년) 중 장기평균을 의미
2)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나쁨)을 의미
3) 자료: 소비자동향조사(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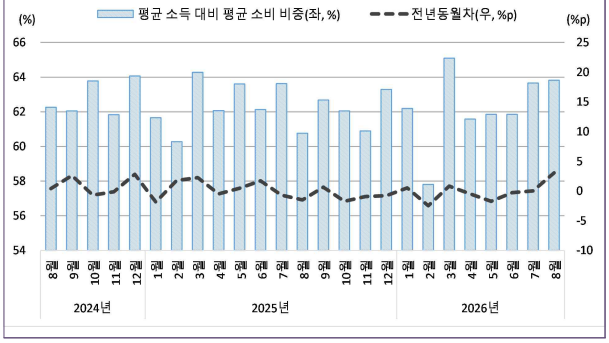
○ `26.8월 전년동월 기준 1인당 카드이용액(현금서비스 포함)은 5.9%, 월평균 소득은 0.9% 증가하여 소득 대비 카드이용액 비중은 전년동월보다 3.06%p 높은 63.82%를 기록

- 세부적으로는 전년동월 기준 신용카드(5.7%), 체크카드(5.8%), 현금서비스(10.1%)가 모두 증가

〔인천 카드사용액 및 전년동월 증감 추이(1인당)〕



〔인천 월평균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 추이(1인당)〕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p.13 참조)

○ `26.7~9월 전년동기 기준 8개 업종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1개 업종이 주의, 3개 업종이 위기를 기록

- 성장 업종은 SSM(40.22%)·자동방문판매등(40.21%) 등 8개, 주의 업종은 기타소매(△7.12%), 위기 업종은 대형종합소매(△15.66%), 가전가구(△16.29%), 문화관광(△27.42%)으로 구성

〔인천지역 업종별 소비 동향〕

(단위 : 억 원, %)

순위	업종*	`25.7월 ~ `25.9월		`26.7월 ~ `26.9월		`26년 누계(1월~9월)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동월비	합계	전년대비
	총계	63,990	1.22	65,481	2.33	191,544	1.05
1	SSM	401	△17.15	562	40.22	1,693	33.02
2	자동방문판매등	276	11.65	388	40.21	1,073	35.96
3	교통운송	328	△38.99	371	13.02	1,093	△5.57
4	자동차기계장비	9,467	0.97	10,644	12.44	29,720	8.42
5	식품류판매	3,770	3.2	4,156	10.23	11,505	4.63
6	농수축협	113	△1.2	123	9.2	331	4.61
7	보건의료	10,224	10.37	10,816	5.8	31,864	7.78
8	교육	2,828	10.37	2,972	5.07	8,602	3.39
9	편의점	3,258	△0.49	3,383	3.83	9,312	1.2
10	식음료점	13,381	0.84	13,817	3.26	39,275	0.91
11	인테리어	695	9.9	713	2.56	2,070	6.44
12	의류잡화	1,374	13.18	1,399	1.79	4,314	6.1
13	여가오락	681	△3.87	691	1.4	2,125	△0.08
14	주점	334	△1.77	338	1.14	997	△0.71
15	생활서비스·금융·정보통신	1,541	7.01	1,541	△0.03	4,589	0.1
16	PC방·노래방	389	△5.89	384	△1.12	1,137	△2.32
17	스포츠시설	1,240	0.95	1,207	△2.61	3,425	△0.74
18	슈퍼	3,711	△1.74	3,609	△2.75	10,271	△5.18
19	숙박	545	△11.46	526	△3.47	1,443	△5.17
20	기타소매	1,604	△4.11	1,490	△7.12	6,460	△7.05
21	대형종합소매	4,742	△13.94	3,999	△15.66	12,943	△14.84
22	가전가구	999	3.13	836	△16.29	2,275	△19.75
23	문화관광	2,089	9.03	1,516	△27.42	5,026	△15.29

* 업종별 세부 분류는 부록 참고. :성장(5%~). :관찰(△5%~5%) :주의(△10%~△5%). :위기(~△10%). 자료 : 카드결제정보, 신한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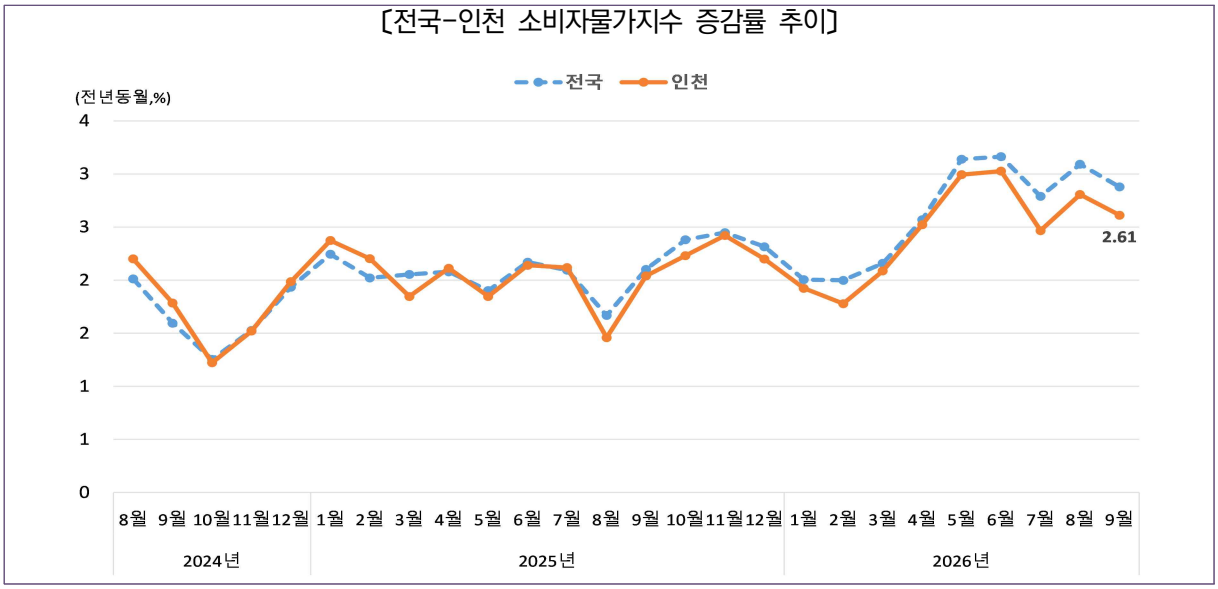
Ⅱ-2 물 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폭이 줄며 전체 물가 오름세는 둔화, 석유류·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은 지속

○ 농축수산물 하락 폭 축소와 석유류 오름 폭 확대로 상품 물가 상승률은 높아졌으나,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낮아져 인천과 전국 모두 물가 오름세 둔화

- `26.9월 전년동월대비 인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61%로 전월 증가율 대비 0.20%p 축소되었으며,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도 전월보다 0.21%p 낮아져 2.88%를 기록
- 전년동월대비 농산물(△4.46%)과 축산물(△1.92%)의 하락 폭이 줄고 수산물(2.63%)의 오름세가 커지며 농축수산물(△2.68%) 낙폭이 축소되었고, 석유류(14.78%)·가공식품(1.93%) 상승 폭도 커져 공업제품은 3.99%, 상품 물가는 전월보다 0.99%p 높은 2.39%를 기록
- 서비스 품목에서는 집세(1.17%)와 개인서비스(3.65%)의 오름 폭이 커졌으나,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전월 6.98%에서 1.39%로 낮아지며 서비스 물가는 전월보다 1.15%p 낮은 2.80%를 기록

〔전국-인천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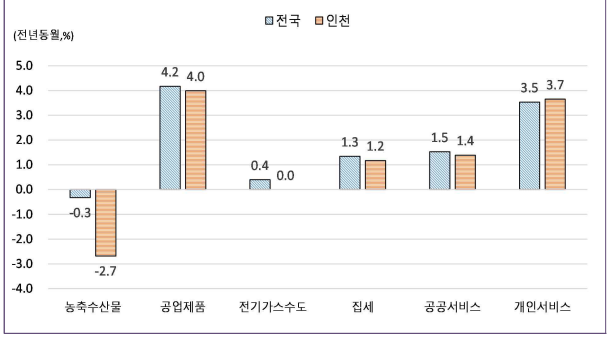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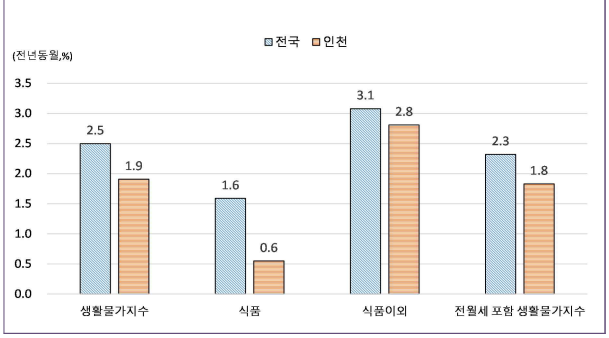
○ `26.9월 인천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1%, 전월대비 0.82% 상승하여 123.14를 기록

- 품목별 생활물가는 전년동월 기준 식품 0.55%, 식품 이외 2.81%, 전월세 포함 1.83% 증가
- 인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국보다 0.59%p 낮았으며, 세부적으로 식품(△1.04%p), 식품 이외(△0.27%p), 전월세 포함(△0.49%p) 모두 전국을 밑돈 가운데 식품에서 격차가 가장 큼

〔전국-인천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전국-인천 생활물가지수 증감률〕



자료 :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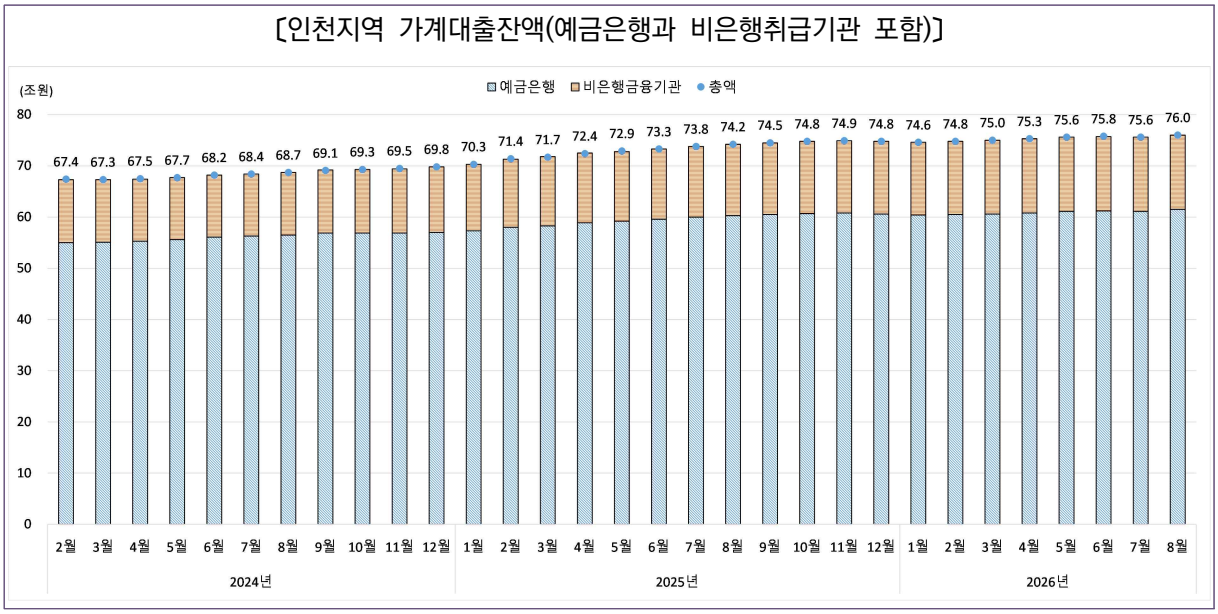
Ⅱ-3 가계금융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잔액이 다시 늘고,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상승

○ `26.8월 총대출잔액은 75조 9,57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전월대비 0.5% 증가

- 전년동월 기준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1.9%)과 기타대출(2.0%)이 나란히 증가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11.5%)만 늘고 기타대출(△4.6%)은 줄어듦
- 전월 기준으로는 예금은행이 3,650억 원 늘고 비은행이 140억 원 줄었으며,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810억 원 증가하여 전체 잔액은 7월 감소 이후 다시 증가 전환

〔인천지역 가계대출잔액(예금은행과 비은행취급기관 포함)〕



자료 :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인천지역 가계대출잔액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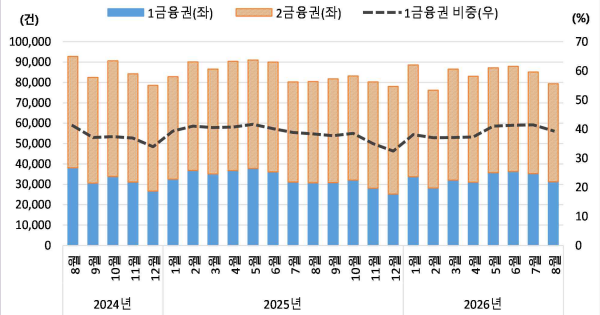
십억원 (전년동월비, %)		2024 연간	2025 연간	2026년 4월	2026년 5월	2026년 6월	2026년 7월	2026년 8월	전월대비(%) 전월차(%p)
예금은행		56,965 (3.6)	60,581 (6.3)	60,786 (3.3)	61,054 (3.1)	61,217 (2.6)	61,100 (1.8)	61,465 (1.9)	0.6
	주택담보대출	48,942 (5.4)	52,639 (7.6)	52,894 (3.7)	53,067 (3.3)	53,163 (2.7)	53,029 (1.6)	53,410 (1.9)	0.7
	기타대출	8,023 (△6.2)	7,942 (△1.0)	7,892 (0.5)	7,987 (1.9)	8,054 (2.5)	8,071 (2.8)	8,055 (2.0)	△0.2
비은행 취급기관		12,835 (1.7)	14,203 (10.7)	14,518 (7.0)	14,540 (6.5)	14,539 (6.1)	14,506 (5.3)	14,492 (4.3)	△0.1
	주택담보대출	6,416 (21.6)	8,116 (26.5)	8,533 (16.3)	8,583 (15.4)	8,632 (14.5)	8,616 (13.0)	8,612 (11.5)	△0.0
	기타대출	6,420 (△12.5)	6,087 (△5.2)	5,986 (△4.1)	5,957 (△4.1)	5,907 (△4.1)	5,891 (△4.3)	5,880 (△4.6)	△0.2
연체율 (%)	국내은행 가계대출	0.23	0.22	0.27	0.29	0.29	0.29	0.30	0.01

주 1) 비은행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기타
2) 자료: 통화금융통계,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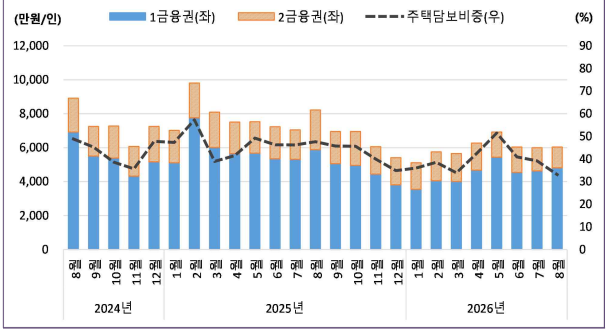
○ `26.8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2금융권 모두 전월대비 줄었고, 1인당 신규 약정액은 1금융권 증가·2금융권 감소로 엇갈렸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개월 연속 하락

- `26.8월 가계대출 신규 건수는 1금융권 3만 1,281건, 2금융권 4만 8,109건이며, 전월대비 각각 11.3%·3.5% 감소, 전년동월대비 1금융권 1.6% 증가·2금융권 3.1% 감소
- 1인당 신규대출 약정액은 1금융권 4,814만 원, 2금융권 1,221만 원으로, 1금융권이 2금융권의 약 3.94배 수준이며 전월(3.39배)보다 금융권 간 차이가 커짐
- 1인당 약정액은 전년동월 기준 1금융권 18.1%, 2금융권 47.9% 감소하였고, 전월 기준으로는 1금융권이 4.0%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은 10.5% 줄어 금융권별 신규 차입 규모가 상이한 움직임
- 신규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3.1%로 전월대비 6.1%p, 전년동월대비 14.5%p 축소

〔인천시 신규 가계대출 건수〕



〔인천시 신규 가계대출 인당 약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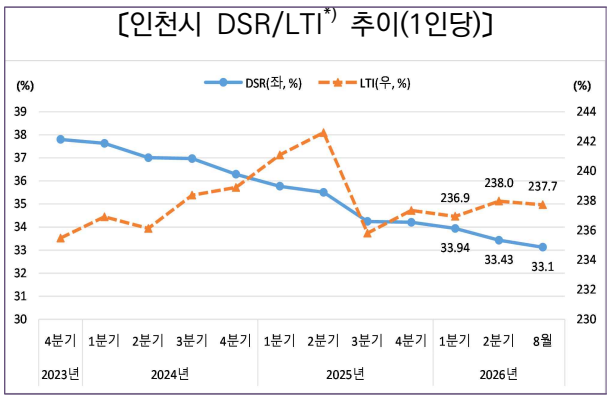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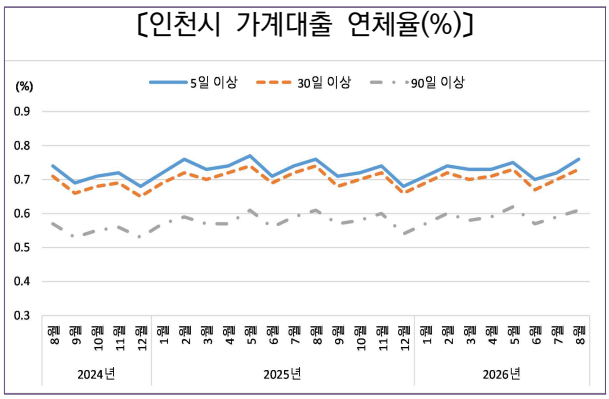
○ `26.8월 인천시 차주의 DSR은 전월보다 낮아졌으나 LTI는 전년 3분기보다 높은 수준이며, 연체기간별 비율은 모두 전월대비 상승

- `26.8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5.3분기 대비 1.12%p, `26.2분기 대비 0.30%p 하락한 33.12%로, 7월 33.19%에 이어 낮아지는 추세
- `26.8월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은 237.73%로 `25.3분기보다 1.92%p 높은 수준
- 연체기간별 비율은 5일 이상 0.76%, 30일 이상 0.73%, 90일 이상 0.61%로, 전월에 비해 각각 0.04%p·0.03%p·0.02%p 상승

〔인천시 DSR/LTI*) 추이(1인당)〕



〔인천시 가계대출 연체율(%)〕



*) KCB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출

자료 : 신용융합정보, KCB

1)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가계신용 집계자료 구매계약을 통해 동 자료를 동향 작성 및 연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KCB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조사방식, 포괄범위 등이 달라 통계값에 차이가 존재

Ⅱ-4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나란히 개선됐으나, 10월 전망은 전월 조사보다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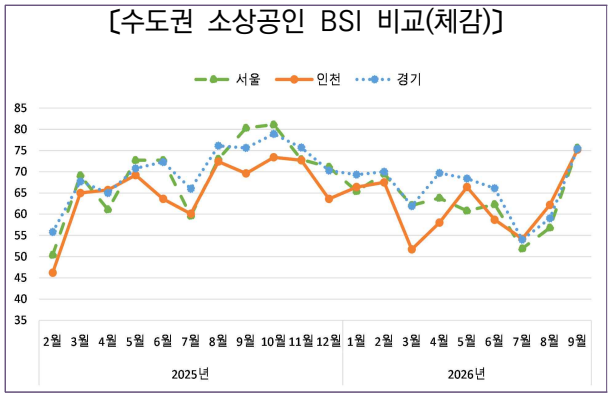
○ `26.9월 인천 소상공인 체감 BSI는 2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기준선(100)을 밑돌았고, 10월 전망 BSI는 9월의 큰 폭 상승 이후 낮아지며 체감과 전망의 방향이 엇갈림

- `26.9월 인천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전월대비 20.9% 증가(전년동월 8.0%)하여 75.2를 기록하였고, `26.10월 전망 BSI는 89.2로 전월 전망보다 7.3% 감소(전년동월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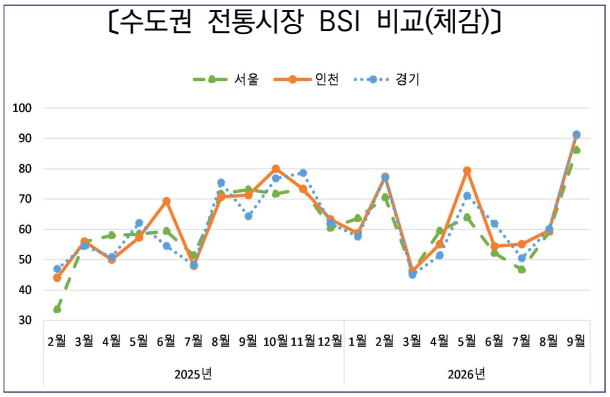
○ 인천 전통시장은 `26.9월 체감 BSI가 3개월 연속 오르며 기준선(100)에 가까워졌으나, 10월 전망 BSI는 전월 조사보다 낮아져 기준선을 다시 하회

- `26.9월 인천의 전통시장 체감 BSI는 91.2로 전월대비 53.0% 증가(전년동월 27.9%), `26.10월 전망 BSI는 90.4로 전월 전망보다 15.2% 감소(전년동월 1.2%)

〔수도권 소상공인 BSI 비교(체감)〕



〔수도권 전통시장 BSI 비교(체감)〕



자료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BSI 지표〕

	소상공인					전통시장			
	2026년					2026년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BSI	63.6	55.6	60.6	76.5	BSI	59.8	50.5	57.0	92.1
제조업	61.9	51.5	65.4	93.8	농산물	55.1	51.3	59.6	107.8
소매업	67.0	60.6	59.0	79.4	축산물	68.9	66.1	65.0	120.6
음식점	65.4	54.7	60.7	72.2	수산물	54.0	42.2	54.7	120.2
부동산	68.9	49.3	60.5	75.6	가공식품	56.8	43.9	63.5	105.7
전문 과학기술	62.5	47.7	59.4	72.7	의류, 신발	66.1	48.6	46.0	61.6
교육 서비스	95.3	76.6	71.9	83.6	가정용품	64.1	43.2	44.9	76.1
스포츠 및 오락	53.3	58.5	66.4	60.9	음식점	55.1	56.2	63.2	78.1
수리업	59.3	52.8	56.7	67.1	기타 소매업	62.9	54.7	58.5	81.5
개인 서비스	57.4	53.6	56.4	83.0					

주 1) BSI(Business Survey index): 현재 경기수준에 대하여 소상공인 9개 업종, 전통시장 8개 업종의 체감지수, 전화조사
2) BSI 조사업체: 2,400개 소상공인 및 1,300개 전통시장
3) BSI 100이상은 경기 호전, 100미만은 경기 악화
4) 자료: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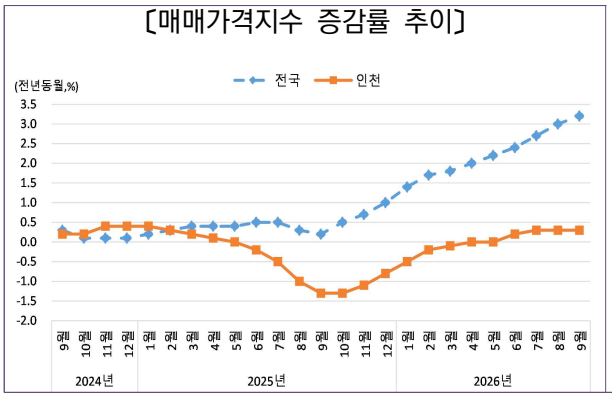
Ⅱ-5 부동산

매매가격은 전년 수준을 소폭 웃돌았으나 전월보다 하락, 전세는 가격·수급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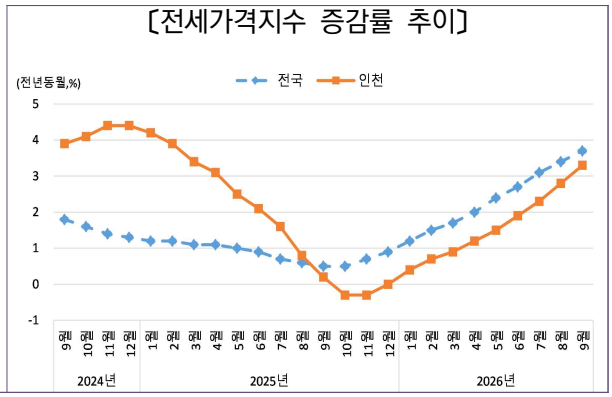
○ 인천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의 전월대비 하락 폭이 커진 반면 전세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강해졌으며, 연립은 매매·전세가격 모두 전년 수준을 밑도는 모습

- `26.9월 인천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27% 상승, 전월대비 0.11% 하락(전국 3.17%, 0.30%), 전세가격지수는 3.28%, 0.50% 상승(전국 3.65%, 0.34%)
- 유형별 전년동월대비 매매가격은 아파트(1.16%), 단독(1.03%) 상승, 연립(△1.53%)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역시 아파트(4.95%)와 단독(0.77%)은 올랐으나 연립(△0.20%)만 내림세를 이어감

〔매매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전세가격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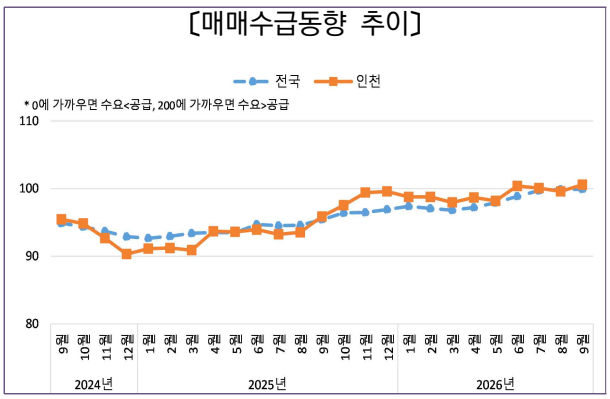


주 1) 지수 기준시점 변경(월간 2026.06=100)으로 증감률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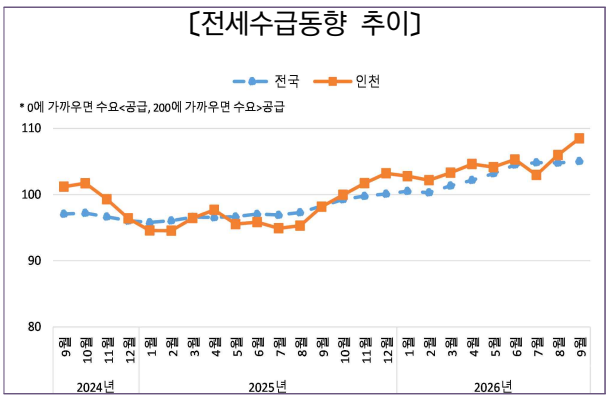
○ 인천 매매수급지수는 100.58로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았고 전세수급은 전 유형에서 높아졌으며, `26.8월 주택거래량은 2개월 연속 줄어 예년 같은 달 평균을 하회

- 전월대비 매매수급은 아파트(1.40%)가 오르고 단독주택(0.00%)은 보합, 연립·다세대(△1.61%)는 내린 반면, 전세수급은 아파트(2.64%), 연립·다세대(1.42%), 단독주택(0.32%) 모두 상승
- `26.8월 주택거래량은 2,930호로 전월대비 20.9%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고, 최근 3개년 8월 평균치(3,452호)를 15.1% 하회하는 수준

〔매매수급동향 추이〕



〔전세수급동향 추이〕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인천 주택거래량(매매)〕

동(호) 수 (전년동월(기), %)	2025년 평균	2026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주택거래량(인천)	3,567 (△0.3)	3,480 (12.4)	4,417 (4.4)	4,507 (9.0)	3,729 (△8.5)	4,067 (△12.8)	3,706 (2.9)	2,930 (3.9)

주 1) 주택거래량은 인천지역 주택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구분 없이 매매인 거래를 합산한 값
2) 자료: 부동산거래현황, 한국부동산원

최근 인천경제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10월 28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